중고차 단지 내 위법 행위 만연… 서구 단속 손 놓았나

28일 오전 광주 서구 매월동 자동차 매매단지 한 갓길에 판매용 중고차(맨앞)가 외부 주차돼있다. 자동차관리법상 판매용 차량은 전시장 안에 주차돼있어야 하며 앞면 번호판을 떼내 행정기관에 맡겨야 한다. /뉴시스

2020년 93건 이르렀던 적발 건수, 지난해 고작 3건
'500대' 매물 초과 보유 의심돼도 확인 뿐 조사 없어
사업장 임대·점용 불가능 인지해도 공문 송달 그쳐

광주 서구가 지역내 중고차 매매단지 대상 불법행위 적발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산 상 손쉽게 확인이 가능한 위법 사항도 의심만 할 뿐 적발에 나서지 않았고 관련 민원이 들어와도 단지에 협조 공문을 보내는 땜질식 예방에 그쳤다.

30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서구는 지역 최대 자동차 매매단지인 서구 매월동 자동차 매매단지를 대상으로 1년 2회 정기 또는 수시로 위법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상 ▲매매용 자동차 사업장 내 전시 ▲자동차 앞면 등록번호판 행정기관 위탁보관 ▲상품용 표지(제시표) 부착 등 3개 항목에 대한 위법 행위다.

서구는 지난 2020년만해도 90건이 넘는 위법 행위를 적발했지만, 이듬해부터 현재까지는 한 자릿수 적발에 그치고 있다.

서구는 2020년 한 해 동안 지역내 자동차 매매단지에서 위법 행위 93건을 적발했다. 상품용 차량을 외부에 주차한 경우(92건)가 대다수로 해당 사유 30건에 과징금을, 40건에 개선명령, 22건에 행정지도했다. 상품용 차량 번호판 관리 미흡도 1건 적발해 행정지도했다.

그러나 이듬해 적발 건수는 직전 년도 대비 90% 줄어든 9건으로 집계됐다. 상품용 차량을 외부에 주차한 건 7건에 이어 제시표를 부착하지 않은 1건, 번호판 관리 미흡 1건 등이다.

2022년에도 정기·수시 단속이 진행됐지만 적발 건은 6건에 불과했다. 2023년에는 10건으로 소폭 늘었다가 지난해에는 고작 3건 적발에 그쳤다. 올해도 이달 중순 단속을 벌였지만 적발된 건은 없었다.

서구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도 적발하지 않았다.

해당 법은 자동차 매매업자가 전시시설을 꾸릴 경우 최소 연면적 660㎡를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60㎡는 일반 승용차 40여 대가 들어찰 수 있는 규모다. 만약 3명 이상 동업자가 같은 장소에서 일할 경우에는 각 매매업자에게 부여된 연면적 기준을 30%까지 완화할 수 있다.

그러나 매월동 중고차 매매단지에 입점해 업자 20명을 두고 있는 한 상사의 경우 이날 기준 전산상 상품용 차량 522대를 보유 중이다. 외부에 주차된 상품용 차량을 전산 상에 등록해둔 위법 사례가 의심되지만 해당 상사에 대한 조사·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밖에 자동차관리법 57조 내용인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할 수 없다'는 행위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공문만 보냈을 뿐 이렇다 할 단속은 없었다.

매매단지 내 상사들은 일부 상사의 상품용 차량 외부 주차, 사업장 부지 양도 등 불법 행위가 지난 2020년 대비 나아진 것이 없음에도 적발 건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상사 관계자는 "지정된 전시장에 매매용 차량을 보관하지 않아 생기는 침수 등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다. 근절되지 않는 전시장 부지 임대·양도 문제도 상사들 사이에서는 행정당국의 공공연한 봐주기 행태로 보인다"며 "단속에 나선다는 공문만 종종 전달될 뿐 제대로 된 단속이 언제 이뤄졌는지 알 수조차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서구는 과거 단속 미흡 사례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보고 적발 체계 재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서구 관계자는 "수치상 적발 건수가 크게 줄어든 점으로 미뤄봐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 같다. 전수조사에 한계가 있는 만큼 몇몇 상사를 골라 단속에 나서며 위법 사항을 시정하라는 공문을 보내왔다"며 "불시 점검 등 단속 체계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서구 매월동 자동차매매단지는 지난 2003년 54개 업체 입점을 시작으로 현재 7개 단지 183개 상사가 들어서있다. 매매용 차량 보유 규모는 183개 상사를 통틀어 1만1200여대로 1개 상사 당 평균 61대다.

/박석우 기자

제1전비 탄약고 이전 공사 재개될 듯

서구 마륵동→광산구 신촌동… 2027년 6월 완공
군사보호시설 내 '서광주로' 등 문제 해소될 듯
국립공원 무등산 정상부 방공포대 이전도 재추진

수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중단된 '광주 금호동·마륵동 제1 전투비행단(제1전비) 탄약고 이전 사업'이 2년여만에 재추진 될 것으로 보인다.

탄약고가 현재의 부지에서 광산구 제1전비 인근으로 이전하면 군사보호시설 구역에 개설된 '서광주로' 통행, 아파트 진입로 등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국방부가 서구 금호동·마륵동 탄약고를 광산구 신촌동 제1전비 인근 부지로 이전하는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공사비용 증액예산 40억원 추가 편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는 증액 예산을 국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것인지, '군사시설 특별회계'를 통해 확보할 것 인지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예산을 증액한 뒤 오는 6월 부터 탄약고 이전 공사를 재개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탄약고 이전 공사가 다시 시작 되면 지난 2023년 6월 중단 이후 2년 만이다.

광주시와 국방부는 1975년 금호동·마륵동 일원 37만㎡ 부지에 설치된 탄약고를 제1전비 인근으로 이전하기 위해 2009년부터 추진했다.

총 사업비를 3262억원으로 책정하고 이전지역 주민 토지 보상과 기초 공사를 시작했다. 공사비의 80%인 2681억원이 투입됐지만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 사업'에 발목이 잡혀 중단됐다.

당시 국회는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서 탄약고를 이전하면 새로운 부지에 추가 비용을 들여 탄약고를 또 건설해야 한다"며 공사 중단을 요청했다.

탄약고 이전이 다시 추진되면 군사보호시설로 지정돼 40년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금호동·마륵동 주민과 현재 개발되고 있는 아파트 진출입로 개설 등의 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군사보호시설 규정에 따라 현재의 탄약고를 중심으로 반경 212만㎡가 개발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광주시는 지난 2015년 6월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광주U대회)를 앞두고 주경기장(광주월드컵경기장) 진입을 위해 군사보호구역 내에 '서광주로'(김대중컨벤션센터역~서광주역 1㎞)를 개설했다.

광주U대회 기간(2015년 7월 3일~14일)에 사용할 목적으로 임시 개통했지만 통행량이 많아 지면서 통제를 하지 못한 채 현재까지 도심 주요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또 서광주로 주변에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하루 차량 통행량은 3만대 이상으로 늘었고 신규 아파트 공사까지 추진되면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

감사원은 최근 "광주시는 제1전비 탄약고 인근 마륵동·금호동 도로에 대해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탄약고 이전과 함께 국립공원무등산 정상부 방공포대 이전 사업도 다시 추진되고 있다. 광주시는 '방공포대 이전 연구 용역'과 주민 설명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탄약고로 인해 40년 동안 광주 중심지역에 대한 개발이 되지 않았고 금호동·마륵동 토지 소유자들은 울타리조차 설치하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 공사가 완료되면 보호시설에 설치돼 감사원 지적을 받은 서광주로 문제와 현재 서광주로를 피해 아파트 진입로를 개설하고 있는 건설사들의 고충도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무등산 정상부 방공포대 이전도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회의원의 요청에 따라 용역과 함께 주민 설명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민규 기자

금고에서 '야금야금'… 현금 10억 훔친 30대 수협 여직원 구속

업무용 열쇠로 금고 열고 현금 빼돌려… 고흥경찰, 은신처 제공한 지인도 구속

자신이 근무하는 수협 지점에서 10억원대 예탁금을 훔친 30대 여직원과 공범이 구속됐다.

전남 고흥경찰서는 28일 30대 여직원 A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범인은닉죄로 30대 B씨를 각각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달 초부터 전날까지 세차례에 걸쳐 고흥군 한 수협 금고에서 예탁금 10억 3000여 만원(수협 측 추산)을 훔쳐 달아났다.

조사 결과 A씨는 금고 출납 담당 직원으로, 업무용 열쇠를 이용해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5만원권을 수천 매씩 종이 가방에 담아 갖고 나오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영업 개시·마감 시간대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을 창구 직원에게 지급 또는 회수하는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A씨는 수협에 입사해 8년가량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협 측은 금고 출납 직원인 A씨가 25일 오전 출근했다가 돌연 행적을 감추자,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 친인척이 살고 있던 전남 광양시에서 A씨를 긴급 체포해 훔친 돈의 용처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A씨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지인 B(36)씨를 장물취득 및 범인은닉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A씨가 1100만원 상당을 소지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돈을 추적하고 있다.

고흥/박도일 기자

순천 주택화재, 산불로 번졌다… 인명피해 없이 주불진화

전남 순천에서 난 주택 화재가 산불로 번져 1시간45분만에 꺼졌다.

30일 전남 순천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5분께 순천시 송광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45분만에 꺼졌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으나 주택 대부분과 주변 산림 0.7ha가 타거나 그을렸다.

당국은 헬기 6대와 장비 23대, 산불진화대원 123명을 동원해 불을 껐다.

당국은 잔불 정리를 마치는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순천/정성인 기자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 전문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